

與 사학법 '타협론' 대두

“국회 운영 정상화 명분 만들자”

‘개방형 이사제’ 개정 논의 끝났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의시 여야간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타협론’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한나라당이 반발하면서 1년간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명분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당은 지난 1일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제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방형 이사제 부분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수정을 요구하며 1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1일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당 의총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방형 이사제 절충안

이 소개되고 일부 의원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개방형 이사제 개정 논의가 끝났다.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를 통해 소개된 한나라당의 제안은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도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고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총장 출신인 양형일 의원은 즉석에서 발언을 청해 “한나라당의 절충안은 우리당이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식제안을 한 상태도 아닌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의원이 발언하면 안된다. 원내지도부와 교육위에 맡겨달라”며 개별적 발언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 개정 불가’라는 당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양 의원은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을 탄압하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극렬 반대하고, 우리당은 사학비리를 해소할 만능장치처럼 여기고 있다”며 “양쪽 모두 실질보다 명분적 가치에 얹매여 정말 국익에 필요한 국가적 사안을 제대로 못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게과 성향의 한 초선의원도 “한나라당이 제안한 안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의 정상화와 사법개혁안 등 다른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서로 양보해서 사학법 대처정책을 조속히 푸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위 소속 정봉주 의원은 “총동창회와 학부모협의회는 비법적 기구여서 추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힘들고, 임시이사 파견주체를 법원에서 보낼 경우 시일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며 “한나라당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안”이라고 질의 달했다.

/연합뉴스



텅 빈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연말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영남중심 역사관’ 등 집중 추궁

박명재 행자 인사청문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박명재(시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영남 중심의 역사관 논란과 노 대통령의 보은 인사, 5.31 지방선거 당시 ‘이중행적’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정치적 정체성 문제 등을 질타하며 박 행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박 후보자가 저서 ‘연어는 손질하지 않아도 물어온다’에서 ‘신라정신의 계승’을 주장한 점과 관련, “특정 지역 중심의 편협한 역사관”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노 대통령이 영남 패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장관에 기용한 것은 영남 중심 정치세력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양정일 의원(광주 동구)도 “박 후보자가 저서에서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통일화에 있다’고 밝힌 것은 지역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이 통일 신라에 있다는 것은 역사학계 내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논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고문은 역사학자들의 의견 등을 들어 쓴 것”이라며 “지역주의적 의도는 없었으며 행자부장관으로서 균형자적 시각으로 일을 하겠다”고 고개를 끊었다.

안경철 의원은 “지방선거 낙선자나 당선자인 자체단체장을 관광하는 행자부장관이 된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사적 차원의 인사권 남용이며 후보자가 국민의 눈을 의식한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도 “지방선거에 여당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을 내정한 것은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박 후보자가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에 이력서를 보냈던 사실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의 요청에 시달리다 못해 이력서를 보낸 게 전부인가 아니면 본인이 한나라당 의원도 만나고 고심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러니 보수꼴통당 소리 듣지”

손학규, 김용갑 비난

원희룡 대선후보 출마 선언

한나라 대권구도 주목

한나라당 소장개혁진영의 리더격인 원희룡 의원이 오는 17일께 당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빅3’ 정립구도로 진행돼온 당내 대권경쟁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원 의원은 출마선언 때 미래세력을 위한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정치를 통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원 의원이 출마의 뜻을 사실상 굳힌 데는 자신과 비슷한 중도개혁 성향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원의 출마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빅 2’ 구도에 당장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지성·언론 위기로 선진국 자임 못해”

이병완 비서실장 “정치언론” 책임론 제기

과동,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교과서포함 문제에 대해 “일본의 글을 통해 현재 언론의 행태를 ‘정치언론’ ‘언론정치’라고 규정하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파수꾼과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전효숙 현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에 대해서도 “의회민주주의의 조종(弔鑑)이나 다른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이 명백한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한 언론과 지성의 침묵과 외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효숙 과동을 ‘드레퓌스 사건’에 비유, “우리 사회에도 1900년대 초

프랑스를 훔쳤던 반(反) 셸족주의와 같은 극우의 광기 가르고 있다”며 전효숙 반대에는 여성, 노현, 비주류, 진보에 대한 비토론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한나라당 최현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또한 “우리 민주주의의 후진성과 아직도 잔존하는 일부 언론계의 깊은 내상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세 가지 사건들을 거론한 뒤 그는 “그 사건의 중심에 항상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연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산업기술지원사업 4차년도 지원대상기업 모집

광주광산업기술지원사업이란?

-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진흥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산업 1단계사업에서 구축된 H/W 및 인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내 광산업 관련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목적으로 기술지도 및 자문을 통한 기술개발, 시험 분석, 품질인증, 기술이전 등의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의 4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업 신청방법

- 신청자격: 지역 내 광산업 관련기업 ※지원대상 기업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해당지원기관에 협약전까지 납입하여야 함.
 - 접수일정: 12월 12일 ~ 12월 15일
 - 접수처: 기관별 지원내용 및 연락처 참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마이크로급 협팀 홈페이지(www.pmtre.kr)에 접속
- ▶ 공지사항 클릭
- ▶ ‘광주광산업기술지원대상기업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
- ▶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관에 제출(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제출)
- * 기타 문의사항은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지원내용 및 연락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한국광기술원	전남대 고급전기전자부품 및시스템연구센터	한국광산업진흥회
지원내용	O광산업 관련 초기화재형제거제작 -3D드릴링 -역설계 -신번기공 -밀립기공 -고속기공 -5축기공 -Wire Cutting -밀집기공 -연기기공 -지그재이팅 -금속시상/조립 -시마시 O광산업 관련 초정밀 지그 제작지원 O광산업 관련 경량화제작 -TO-can, TOSA/ROSA, 광섬유유지 자, 광파렌즈 등 제작 -물리이스기공 -금속코어기공 -홀리싱 -고온용축성형	O광기술 분석 특성·신뢰성시험 및 계기교정 지원 -SEM, XRD, SPM 등 18품목 지원 -국제규격(IEC, Telcordia)에 따른 광부품 특성 및 신뢰성 지원 -광통신 제품기 교정 지원 O첨단 고강경 및 클립팅 시설 이용 -IC, PECD, Laser welder 등 100도를 지원하며 리스트 헤이드 -클립팅 시에 헤이퍼기공실, 조립폐 장치 520평 O광기술 시제품 제작 및 특성 분석 지원 -TO-can, TOSA/ROSA, 광섬유유지 자, 광파렌즈 등 제작 -물리이스기공 -금속코어기공 -홀리싱 -고온용축성형 ※보유장비는 출판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기술 개발 지원 -LED 등광제품의 커트리거 개발 지원 -광파송제품의 경비 저감화 -스템 개발 지원 -기티 전자부품 및 시스템 개발 지원 O제작 기술 또는 신기술에 대한 자문 및 지도 지원 -광파송 장비의 고정밀화와 협단화를 위한 DSP 기술의 지원 -LED, 광통신 광원 및 구름화로 등의 기술 지원 -태양광 패널 시스템의 설계 제작 기 술에 대한 지원 O광기술 시제품 제작 및 특성 분석 지원 -PCB Artwork과 프로토입 PCB 제 작을 위한 CAD 설계시스템 지원 -광파송 장비에 사용되는 각종 인더터 및 전원, 제어회로 등 설계 제작 지원 -면밀 조사가 가능한 시제품 제작 시 외관케이스 제작 지원 * 지원내용은 출판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제작부문 : 소재·제작부문의 80~90%이내 - 자문료 : 밝은기기 100% - 어전비 및 일반체계 : 절반 O해외투자유치지원 사업 - 지원내용 :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계획, 경영지원 - 투자유지지원 전문설립업체 - 선정·운영 - 지원내용 : 적금·업체보험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컨설팅 - 해외투자유치지원 협약 IR자료 - 해외투자자 산업 및 투자상담 지원 등
담당자	곽경훈 연구원	김암규 연구원	인재영 박사	신현국 연구원
연락처	(TEL) 062-600-6091 (FAX) 062-600-6099 (E-Mail) ygk811@kitech.re.kr	(TEL) 062-505-9243 (FAX) 062-505-9249 (E-Mail) ygkim@kopti.re.kr	(TEL) 062-530-3920 (FAX) 062-530-3919 (E-Mail) jyahn@chonnam.ac.kr	(TEL) 062-522-0077 (FAX) 062-522-0050 (E-Mail) hikson@kapid.org
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1-3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생신기기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1-35 한국광기술원 광통신부품 시험생산 센터 (http://occp.kopti.re.kr)	전남대학교 광대교 광대교 월출동 407호 고급 전자부품 및 시스템 연구센터	광주시 북구 월출동 971-35 한국광 산업진흥회 시험운영팀
홈페이지	www.pmtre.kr	www.kopti.re.kr	rc.chonnam.ac.kr	www.kapid.org

9급 공무원

국가직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채용시험대비

행정직
국가김정진 국사·이현형 행정 10명
행정부: 흥우현 행정학: 이명호

교정직
교정 450명 대비반
특채: 1,000명 특별반

농업직
전국 대표적 농업직 강좌
출제위원 100명 이상우 교수팀

소방직
소방분야, 운전분야
소방직 책임합격

경찰직
일반경찰 101단
차주운 합격팀 강의

전남여고 맞은편
(광주 동부경찰서 뒤)

상담전화

☎ 062-222-5105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

유해조수 구제, 멧돼지 잡는 공기총 출현



최신형 신제품 최고 위력(공기저장탱크 500cc)을 갖춘 공기총을 국내 최초 시판합니다

연중 개인소지 및 자유보관 가능
호신용 장비 연중 전시 판매

최신형 각종 총포 처음으로 판매가격 청탁제 실시/카드 할부 원정

계림총포무역

(062) 522-0077, 529-7988

광주광역시 북구 증평동 643-20(구시청 앞)</